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오늘 친교 후 예배실에서 지난 2 월 다녀온 혼두라스 단기선교 평가회를 갖습니다.
- 매일성경 5-6 월호 나왔습니다.
받으시는 분들은 권당 \$5 씩 현금봉투에 ‘매일성경대금’ 이라고 쓰셔서 현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17 년 4 월 안내: 전영자 권사
 다음 주 기도: 김동수 집사/시편 23 편
 이번 주 친교: 백희진/이현주 집사
 다음 주 친교: 안정자/이영순 권사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 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 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성경공부: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민영 목사 914.874.3606(C) mylee4x@gmail.com

예배/지휘 전도사: 이상민/중고등부 전도사:Edwin Kim

유년부 간사: 안정자/만주자: 윤미경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주일에배순서

2017년 4월 30일	인도: 이민영 목사
*입례송영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 찬양하여라”	다함께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찬송 (Hymn) 19 장(통 44 장) “찬송하는 소리있어”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시(Psalms) 116:1-4, 12-19 황혜영 집사	
찬양(Choir) “서로 사랑하자”	세광찬양대
봉헌기도	인도자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갈(Gal.) 4:8-20	인도자
설교 (Sermon) “좋은 뜻으로 내는 열심”	이민영 목사
*찬송 (Hymn) 546 장(통 399 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체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2017. 4. 23. 주일 설교 요약

돌아온 아들 (갈 3:26-4:7)

본문에서는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하여 얻은 은혜의 핵심을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으면 민족이나 계급, 빈부나 문화에 따른 다른 어떤 신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들이면 유업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과 보화와 돌보심을 얻습니다. 다른 모든 자랑은 아들된 것에 속합니다. 아들이 아니면 명예와 부와 영광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히려 돌아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한폭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됨은 누구에게나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가 차서 약속이 이뤄지고 믿음이 와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은 1) 우리를 속량하시고, 2) 아들의 명분을 주신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우리르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주어 하나님께 묶이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어 아들 되는데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죄를 떠나 자유해야 하고, 둘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묶여야 합니다. 그럴 때 아들의 유업을 누립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풀어주심으로 아들되었다면 우리는 죄중에 빠졌던 옛사람의 습관과 사고방식을 떠나야 합니다. 죄와 우상을 버리고, 세상 풍조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믿었을지라도 돼지우리를 떠나, 방탕한 삶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용서함을 받고, 아버지 집의 음식과 잠자리만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아버지와 상관없는 방탕한 삶을 산다면 여전히 잃어버린 아들이지 돌아온 아들은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아들 삼아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옛 삶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의 뜻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은 거룩하고 의롭게 산다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온 탕자는 노예 중 하나처럼 열심히 일하면 아버지 집의 음식과 잠자리를 얻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귀한 아들로 대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아들로 의롭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돌아오는 길입니다. 여전히 노예처럼 내가 일해야 보상을 받는 것처럼 산다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인데, 자기가 일한만큼 알아주지 않았다고 원망에 가득했던 큰 아들처럼 여전히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이 힘들게만 보입니까? 구원해주신 것을 믿었다면 죽었던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회개를 생각만하니 어려우거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용서와 도우심을 구한다면 “아직 상거가 먼데” 달려나와 안아주었던 아버지처럼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일이 어렵게만 보입니까?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이뤄지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까지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아들됨의 확신이 없이 언제 보상을 잃을지, 마치 노예 중의 하나와 같이 조마조마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아들됨을 누리십시오. 성령께서 도우셔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알게 하실 겁니다.

왜 열심히 사는데 안 주시냐고, 정성스런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느냐고, 저 사람만 잘되냐고 원망스럽습니까?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이 아들 것입니다. 내 행위대로 이룬 것, 내 기도대로 받은 것만 내 것이라고, 아들됨을 누리지 못하고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담대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모든 것을 더하십시오. 먹고 마시는 세상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게 하십니다.